

13. 베틀콩 할머니, 시장을 장악하다. 단골들이 지켜낸 베틀콩.

이번의 얘기는 농촌이 아닌 박물관에서 씨앗 나눔을 통해서 씨앗을 수집한 베틀콩 이야기하려 한다.

박물관은 씨앗도서관을 겸하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씨앗 나눔을 통해 토종 씨앗을 보급하는 것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시국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나눔을 했으나, 이 온라인 나눔은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일 뿐 애초 나눔의 의도였던 토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다고 하여 야외에서라도 직접 하자고 결의한 것이 2022년 씨앗 나눔이다.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토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수집 이야기도 하며 소통한다.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분이 전년도에 분양받아 가 씨앗을 채종 하여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되돌려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 토종 보급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행사이다. 특히 슬로푸드 내포지부가 만든 토종 음식을 나누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한다. 씨앗 지킴이들의 이야기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해서 우리에게는 박물관을 열고 얻은 자유와 함께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씨앗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진에서 오신 분이 베틀콩을 소개했다. 서산의 한 할머니가 지킨 콩인데, 종자 아끼기를 삼 대 독자 불알 아끼듯 하여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콩알도 남김없이 줍는 분이다. 지금의 베틀콩도 겨우 탈곡 후에 논두렁에서 박혀있는 몇 알을 주워 와 지금은 이웃에 분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덧붙이길 베틀콩으로 아들딸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만나고 싶어졌다.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나 인터뷰는 그만두고 만나 이야기도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따님 전화번호를 줄 테니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다. 다행히 따님도 서산에서 토종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어 쉽게 통화는 할 수 있었으나 인터뷰는 쉽지 않을 것이니 자신이 옆에서 수다 떨며 거들어 줄 터이니 한 번 시도해보라는 것이었다. 딸이 생각하기도 아주 꼬장꼬장한 어머니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서산 베틀콩을 수집하기 위해 나섰다. 드문 일이었다.

입을 굳게 다문 만큼 그 안에는 많은 사연이 있는 법이다. 나는 따님의 친절에 안식구를 동반했다. 아내의 동반은 함께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따님을 어머니로부터 떼어놓자는 심사였다. 따님이 옆에 있는데, 입안에 뭉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싶었다.

약속한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뒤이어 따님이 도착했다. 알고 보니 아내와는 씨앗 공부를 할 때 만난 사이라 구면이었다. 오히려 잘 됐다. 덕분에 둘이 이야기하게 두고 어머니는 따로 만날 수가 있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오셨는데, 깜짝 놀랐던 것이 다리가 불편한 분이셨다. 불편한 다리에 놀란 것이 아니라, 불편한 다리로 우리가 선입견을 품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운 삶을 사셨을까 해서 놀랐다. 바로 우리가 만나고자 했던 권 할머니였다.

- 지들은 몰르쥬. 부모 알 수 있는 자식이 워디 이쥬?
- 물려야쥬, 알아서 또 뭐하간유.
- 하긴 그류. 부모 고생한 거 알아봐야 보탬 될 거 하나 읊슈.

미리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너스레를 떨며 다가갔다. 그런데 따님과 안식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굳었던 입이 열리고 이야기보따리가 풀어지기 시작했다. 의외였다. 어찌면 내가 말 나갈 일 없는 외지인이라 맘 놓고 말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인사가 끝나자 말도 이어지기 전에

음료수가 나왔고, 한과까지 나와 먼저 먹고 나서 얘기하잔다. 할 얘긴 없으나 물어보면 답하겠노라 하며 내가 다 맛보기를 기다렸다.

어린 시절 면전에서 서산으로 시집와 보니 이런 가난도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가하라는 데, 그것도 서 말 가웃지기 논과 쌀 반 포대를 가지고 분가하라는 것이었다. 이게 우리 마을처럼 산골에서도 농사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그 넓은 서산 땅에서 그 정도라니 그녀에게 가난은 전쟁 그 자체였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성격이 자녀들을 이렇게 곱게 키울 수 있었겠다는 것을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차츰 알게 되었다.

- 될규!

- 똥자뉴!

낙심하는 남편을 항상 따라다니는 난관에는 ‘될규’. 비록 그것이 하찮은 작은 성과에도 ‘똥자뉴’ 라는 말이 그녀의 삶을 이어갔다. 이 두 단어는 그녀의 불편한 다리와는 달리 항상 나란히 걸었다. 그러다 보니 밖으로 흘러야 할 것을 안으로 삼켜버린 눈물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것이 끝내 병이 되지 않은 것은 그녀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었다.

- 인저 부자 돼썬. 논을 열댓 마지기를 마련했고, 밭도 천여 평있으니 부자 아썬? 년 전엔 저 앞에 보이는 산도 장만해썬.

그녀에게 부자는 논 열댓 마지기와 약간의 밭, 그리고 아들이 보태서 년 전에 구입한 산 정도면 부자였다. 불평등하긴 하지만, 하긴 그녀의 시작이 부자 기준점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시작한 재산. 쌀 반 포대에 아무리 보리쌀을 섞고 밀 것을 먹는다 해도 금세 떨어졌다. 정부미를 받아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장리쌀을 끼니를 이었다. 이것을 자식들이 기억 못하는 것도 다행이라 했다.

- 이런 거 자식들이 기억해서 똥 한 대썬. 모르는 게 약이지. 가재 다리 불편한 어메까지 똥는다.

똥가가 필요했다. 권 할머니가 선택한 것은 들에 나는 나물을 가지고 장에 나가보자는 것이었다. 주인 없는 미나리, 달래, 쑥에 냉이, 옹긔¹⁾ 등이 그녀의 장짐에 얹혀었다. 버스를 타고 족히 20여 분은 가야 서산장이었다.

권 할머니는 자식들은 그만두고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내뱉지 않았지만, 첫 장에 나간 일을 잊어본 적이 없다. 고개를 들어 손님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유!’를 외쳤으나 소리는 점점 기어들어 갔다. 혹여 누군가 냉이를 산다 해도 얼굴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하늘을 향해 쑥 내밀어 돈을 받았다. 혹여 친정집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을 만날까 두려웠다. 첫날은 겨우 늦게까지 장짐을 비우고 돌돌 말린 지폐 몇 장을 땀이 나게 움켜쥐고 늦은 버스를 탄 그날부터 권 할머니의 장짐은 시작되었다.

- 그 돈으로 뭐 한지 아썬? 집에 와서 다리미로 곱게 펴서 새 돈 만들어서 애덜 기성회비 줬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뒤이어 그녀의 장짐에는 무엇이든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얹었다. 좀 더 노동이 든다 해도 이가 더 남으면 그것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두부였다. 이것이 콩과의 인연이었다. 힘은 들지만 이가 가장 컸다. 서산 장은 2.7 장이지만 장날과는 상관없이 상시로 서서 장거리가 생기면 장에 나갔다. 서서히 살림이 피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궁핍함은 보이지 않아도 똥다. 그것이 제일 좋았다. 이 가난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 제일 무서웠다. 권 할머니는 고쟁이 주머니 속에 흙냄새가 풍기는 돈을 꺼낸 돈으로 자식들이 가난을 아는 것을 막기 위해 썼다.

1) 마을에서 나는 지역 식용 야생 나물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베틀콩. 그녀의 삶을 바꿨다.

- 한 40년은 된나뭇. 누가 졌는지도 몰라. 그땐 마을에서 뉘 네 뉘 네 할 거 없이 다 심었으께.

사실 그전에도 권 할머니의 장짐에 콩나물이 있기는 했으나 시원찮았다. 처음에는 단지 구색 갖추 정도였으나 욕심이 생겼다. 두부나 묵은 일거리가 많고 힘이 드는 데다가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콩나물은 기르기도 쉬운데다가 이가 많았으니 장거리로는 좋았으나, 처음에 주저했던 것이 상품성은 대량으로 도매로 넘기는 공장에 비해 떨어졌고, 이를 남기려고 붙인 가격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콩나물이 자라는 데 허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흰콩은 대가리가 무겁고, 약콩은 새콩처럼 불지 않는 콩들이 많아 허실이 많이 되어 수익성이 떨어졌다. 또한 수익성을 맞추고 나면 맛이 문제였다.

마침 그때 베틀콩을 만난 것이다.

- 요게 자잘한 게 풋콩일 때 밥밑콩으로 쓰면 기가 마쥬! 향내가 부엌에 진동휴! 고때 알았지. 요게 콩나물로 자라면 기가 막힐 거다 했쥬.

권 할머니가 베틀콩 콩나물 시험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라는 데는 베틀콩은 대가리가 가벼워 훨씬 미끈하게 죽 빠졌고, 풋콩의 향이 그대로 간직해 콩나물 맛이 뛰어났다. 권 할머니는 누가 들을까 봐 소리 나지 않게 무릎을 쳤고, 그 뒤로 베틀콩은 할머니에게 보물이 됐다.

그 뒤부터는 장짐에 콩나물이 늘어난 만큼 목욕탕에 콩나물시루도 늘어났다. 목욕탕은 콩나물 공장이 된 지 오래였다. 그녀의 목욕탕에는 시루가 지금도 대여섯 개 있다. 모두 장에 나갈 날짜에 맞춰 층층이 시차를 두고 기르는 콩나물이다.

- 말두 마쥬. 장에 나가면 손님들이 쭉 지달리구 있거등유. 내 콩나물 먹을라고.

그녀의 베틀콩 콩나물을 맛본 사람들은 그녀가 장에 오는 차 시간을 알고 기다린다. 그러나 시장의 경쟁자들에게는 콩나물콩이 베틀콩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단골들을 지켜온 비법이다.

어쩌면 베틀콩을 지킨 것은 권 할머니가 아니라 서산장의 단골손님일지도 모른다.

처음 콩나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단골이 생기면서는 콩 한 알이 아까웠다고 한다. ‘콩나물 하나를 들킨 주면 단골이 느는 뻔인데...’ 권 할머니의 시장 단골을 대하는 법을 짐작할만한 말이다.

베틀콩은 늦콩이다. 벼 베기를 마쳐야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늦게 수확한다. 권 할머니는 이 수확 시기가 콩 맛을 좌우한다고 여기고 있다. 설익은 콩을 바심하면 콩나물이 비릿하고 너무 늦으면 스스로 튀어 나가 허실 됴이 많으니 그때를 잘 맞추어야 제대로 된 콩나물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시기를 맞추다 보니 벼 바심과 겹치고, 때가 지나 스스로 튀어 나간 콩들이 많았다. 콩나물값에 비하면 이렇게 튀어 나간 콩이 아까워 한 알 한 알 주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종자를 얻으러 올까, 누가 콩을 얻으러 올까, 이렇게 한 알까지도 주운 콩을 함부로 내돌릴까? 어느덧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가둬 콩알 하나 안 주는 꼬장꼬장한 할머니로 둔갑시켰다.

그렇게 한평생을 장에서 보낸 권 할머니, 이 장 붓짐이 자녀들을 키워내고 가르치고 땅을 마련해서 부자(?)가 됐으나 지금도 장 붓짐을 놓지 못한다. 자식들의 성화가 적지 않다.

- 애들은 난리지. 먹고살 만하고 몸도 성치 않으니 그만두라고. 근디 그게 그렇지 않거든. 장이라는 게...

권 할머니에게 장이란 이제는 단순히 장거리를 팔고 이를 남는 곳만은 아니다. 나도 어머니가 80이 훌쩍 넘었을 때도 나물 한 줌 삶아서 장에 가는 것을 이해 못했다. 어떨 때는 차비도

안 되는 돈을 받아 들고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올 때는 ‘저 분에게는 장이 뭔가’ 하는 생각을 갖곤 했다. 권 할머니나 어머니나 그분들에게는 장은 이미 **삶의 일부**가 돼 있었다. 그래서 권 할머니의 장 붓짐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지금도 욕실에 가면 단계별 콩나물시루가 까만 천으로 덮여 있다. 한 시루가 하루 몫이다. 그녀는 욕심이 없다. 좀 더 욕심을 내 많이 기를 수도 있는데, 그녀의 장짐은 아주 적다. 항상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장에 가는데, 그녀가 들 수 있을 장짐만큼의 소박한 욕심이 시장 바닥에 그녀의 삶처럼 단단히 박혀있다.

아직도 장에 나가면 권 할머니의 콩나물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단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댄다고 한다.

- 그래도 우리 토종을 이렇게 지켜 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 내가 지켜간?. 콩나물을 바꾸면 단골들이 대번 알아봐. 바꿀 수가 없어. 그 단골들이 지켜낸 거지 뭐.

그녀는 토종이라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연코 잘 팔리니 베틀콩을 쓴다 했다.

당연히 씨를 놓칠 리 없다. 지금도 현관 밖에는 콩나물을 키우기 위한 베틀콩이 수북이 쌓여 있다. 현관의 콩이 없어질 무렵이면 콩을 심어야 한다. 권 할머니의 베틀콩은 콩나물이 지켜냈을지도 모른다. 아니 장 손님이 지켰을지도 모른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에 말리던 콩을 잔뜩 쥐여준다. 박물관에도 있다 하니 한 말 씀 거든다.

- 밥밀콩으로 쓰일 풋콩의 향내는 따라 올 콩이 옹글께 가져가 봐유. 그리고 콩나물을 지를 때는 불리지 말고 물을 주면서 불려 키워야 혀!

베틀콩이 밥밀콩으로 쓰인다는 사실도 알았고, 권 할머니의 콩나물 비법도 슬쩍 알려 주셨다.